

연령·성·친구관계 유형이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ge, Sex, and Friendship Type on Child's
Shared Knowledge of Friend

김 영 희**

Kim, Young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ge, sex, and friendship type on child's shared knowledge of a friend.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raised; Child's shared knowledge of friend would increase with age, shared knowledge of girls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boys shared knowledge of girls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boys shared knowledge in a mutual friendship would be higher than in a unilateral friendship, there would be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friendship type in child's shared knowledge of frie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80 boys and girls, 8- and 11-year-olds. Shared knowledge of a friend was measured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70 picture items developed by Ladd and Emerson (1984).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three-way ANOVA.

Child's shared knowledge of a friend increased with age. Girls exhibited greater ORSK (other-referenced shared knowledge) than did boy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irls and boys in SRSK (the selfreferenced shared knowledge). Mutual friendships exhibited greater SRSK than did unilateral friendshi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utual friendship and unilateral friendship in ORSK.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friendship type in child's shared knowledge of friend.

* 1986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지티학과 박사과정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아동의 친구관계 (friendship)는 아동이 가정 밖에서 생활의 場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아동은 친구관계를 통해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며, 자기 나이에 알맞은 技能과 흥미를 발달시키고,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이 친구와의 상호관계속에서 소속감이나 애정을 느낄 수 있으며, 칭찬이나 인정, 신뢰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경험한다는 것이다(박희숙, 1985).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동이 또래 집단 내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 親近性을 가지고 원만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은 아동의 社會性 발달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앞으로의 삶을 즐겁게 영위하고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Levinger 와 Snoke(1972)는 성인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共有知覺(shared perception)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Duck 와 그의 동료들(1980)도 아동의 친구관계 형성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共有知識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에게 의하면, 친구들은 상호교환과 공동활동에서 서로를 관찰함으로써 共有知識을 발달시키며,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 상호인식함으로써 아동은 친구가 자신과 얼마나 유사하며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적·사회적 특성들에 대한 친구들의 共有知識은 아동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됨으로써 친구관계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Ladd & Emerson, 19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해진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김미정, 1985; 박희숙, 1985; 이선희, 1986; 이주옥, 1985; 최순자, 1984)는 친구관계 개념의 발달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즉, 아동이 친구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밀한 대인관계의 형성·유지와 또 그러한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개념의 발달적 경향 위주로 행해져 왔을 뿐, 친구들이 실제로 서로의 특성들에 대해 얼마나 상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친구들의 지식은 친구관계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친구관계에 있어 아동들의 共有知識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사회적 특성들에 대한 친구들의 共有知識을 年齡別·性別·親舊關係 類型別로 파악해 보고자 하며, 나아가 아동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친구관계의 특성을 밝혀 아동이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假說

제 2장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假說을 설정하였다.

假說 1 : 연령에 따라 친구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은 증가할 것이다.

假說 2 : 친구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을 것이다.

假說 3 : 친구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은 상호적 친구관계가 일방적 친구관계보다 높을 것이다.

假說 4 : 친구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은 연령과 친구관계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3. 用語의 定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共有知識 (shared knowledge) : 친구관계에 있는 아동들이 서로의 개인적·사회적 특성들에 대해 상호적으로 동일하게 知覺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들간의 共有知識을 自己準據 共有知識 (SRSK) 과 他人準據 共有知識 (ORSK)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自己準據 共有知識이란 자신과 친구가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에 대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他人準據 共有知識이란 친구만이 지닌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서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親舊關係 類型 (friendship type) : 본 연구에서 親舊關係 類型은 친구관계 구조의 분석에 의해 상호적 친구관계 (mutual friendship)와 일방적 친구관계 (unilateral friendship)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상호적 친구관계란 두 아동이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상호적으로 지명한 관계를 말하며, 일방적 친구관계란 A는 B, B는 C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명한 관계를 말한다.

4.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친구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림도구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동들은 한정된 그림항목의 범위 내에서만 반응함으로써 항목 이외의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과 친구간의 유사성을 추측하여 반응하거나 또는 자기 친구의 반응을 추측하여 반응하는 경우를 엄격히 통제할 수 없었다.

II. 理論的 背景

1. 친구관계의 定義 및 特性

친구관계는 아동기의 중심적 대인관계로서 (Damon, 1977 ; Hartup, 1983), 고대로부터 인간의 생애 발달을 통한 인간관계 중 가장 공통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Hartup (1978, 1983)은 친구관계를 ‘애정·관심·흥미 및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二元的 (dyadic)이며 독특한 愛着關係’로 정의하였다. 또한 친구관계는 강한 상호관계 즉, 상호성, 균형, 애정, 친밀감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혜택을 친구와 함께 나누려는 시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Newcomb, 1982).

이처럼 친구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개인적 수준 (personal entity)의 관계"라는 정의(윤진, 1984)로 압축할 수 있다.

Walster와 그의 동료들(1978)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좋아함 혹은 사랑의 강도가 증가한다.
둘째, 교환된 정보의 깊이와 넓이가 증가한다. 그리하여 친밀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특성, 개인적인 내력, 취약성 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셋째, 관계를 맺는 실제적인 기간이 증가한다.

넷째, 교환된 자원의 가치가 증가한다.
다섯째, 자원의 교환 가능성이 증가한다.
여섯째, 우리의식(we-ness)이 증가한다.
그리고 Sullivan은 친밀한 친구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첫째, '친밀한 自己露出' 및 '친구들과 개인적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것' 둘째, '한 친구의 개인적인 정보(예: 친구의 근심, 공포, 성격 특성)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언급하였다(Berndt, 1982).

2. 친구간의 共有知識과 年齡

Sullivan에 의하면, 前青年期에 이르러 아동들은 친구간에 친밀한 지식을 얻는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Sullivan의 주장은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친구들과 생각·느낌을 친밀하게 나누는 것'과 '한 친구에 대한 친밀한 지식'에 대한 언급이 중기 아동기와 초기 청년기 사이에 여실히 증가한다(Berndt, 1981; Bigelow, 1977; Bigelow & La Gaipa, 1975; Douvan & Adelson, 1966;

Reisman & Shorr, 1978; Selman, 1981; Sharabany, Geshoni & Hofman, 1981; Younis, 1980).

아동들이 친구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Selman(1980, 1981)의 연구결과, 친구관계를 형성할 때 어린 아동에게 있어서 상호적 매력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공통된 흥미, 선호, 능력 등에 대한 共有知識이었다. 그러나 나이 든 아동의 친구관계에 있어서 상호적 매력의 기초가 되는 것은 친구간의 유사성에 관한 共有知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차이점에 관한 상호적인 인식도 포함되었다. 또한 Selman은 아동들이 가까운 친구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있어서의 그 발달적 변화를 설명했다. 학령 전 아동들은 친구가 사는 곳과 같은 외적 정보를 언급하며, 중기 아동기에는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게임·활동 등과 같은 친구의 선호에 대한 지식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청소년들은 친구의 내적 특성 혹은 성격 특성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Diaz & Berndt, 1982).

Diaz와 Berndt(1982)는 4학년, 8학년을 대상으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친밀한 지식과 친밀하지 않은 지식에 있어서의 발달적인 변화를 조사한 바 있었다. 연구결과, 가장 친한 친구의 기호·사고·감정 등 내적인 정보에 대한 知識에 있어 유의한 연령차가 발견되었다. 또한 1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친구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의 발달을 살펴 본 Ladd와 Emerson(1984)의 연구에서도 年齡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즉, 4학년 아동이 1학년 아동보다 친구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3. 친구간의 共有知識과 性

Sharabany 와 그의 동료들(1981)은 친밀한 自己露出 및 친구에 대한 知識에서 性差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Diaz 와 Berndt (1982) 또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친밀하고 내적인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실제 知識에 있어 性差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Ladd 와 Emerson (1984)의 연구에 있어서도 친구의 개인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은 性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친구관계의 개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친구관계에 대한 개념의 양상·발달경향 및 반응양식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구와의 친밀한 대화’나 ‘친구들의 친밀한 지식’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하였다고 한다.

Douvan 과 Adelson은 그들의 연구(1966)에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욱 친밀하고 밀접한 친구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했으며, Maccoby 와 Jacklin (1974) 또한 同性의 친구관계에서 여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친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Sharabany 와 그의 동료들(1981)은 여아는 사회화의 영향으로 친밀감에 관련된 욕구가 높은 반면, 남아는 친밀감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덜 중요시하고 도구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性에 따른 차이는 自己露出(self-disclosure)에 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기노출이란, 넓게는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

을 통해 他人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좁게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옥현, 1986). 이러한 自己露出에 관한 연구들(Cozby, 1973; Derlega, Durham, Gockel & Sholis, 1981; Morgan, 1976)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 덜 노출한다고 보고하였다.

4. 친구간의 共有知識과 친구관계 類型

몇몇 연구자들(Crockett & Friedman, 1980; Duck, 1977; Levinger, 1974)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의 발달과 친밀한 관계의 발달이 같다고 보았다(Chelune, Robison & Kommor, 1984).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가 친밀해 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양적·질적으로 발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개인들은 기꺼이 상대방과 친밀한 정보를 교환하며, 그 결과로써 친구들은 상대방의 내력·가치관·장점과 약점·희망과 공포 등에 관한 깊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Derlega, 1984).

즉, 친구관계가 상호적일 때 친구들은 상호적으로 개인적 영역을 노출시키며, 이러한 자기노출은 친구간에 共有知識을 가지게 하고, 그리하여 친구들은 서로에 대해 더욱 알게 되고 이해하며 수용하게 된다.

몇몇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우연적 관계에서 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노출한다는 것을 밝혔다. 우연적 만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가장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정보만 노출한다. 반면, 친밀한 관계에서 친구는 그들 자신에 대

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 보이며, 그리하여 친구들은 상대방의 친밀하고 내적인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Altman & Tayler, 1973 ; Huesmann & Levinger, 1976 ; Worthy, Gary & Kahn, 1969).

Ladd와 Emerson(1984)도 친구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이 친구관계 類型 즉, 상호적 친구관계와 일방적 친구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친구의 개인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아동의 共有知識은 친구관계 類型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상호적 친구들이 일방적 친구들보다 共有知識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8세(국민학교 2학년), 11세(국민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남녀 아동으로 각 연령당 40명씩 총 80명이었다. 각 연령집단별로 상호적 친구 10쌍과 일방적 친구 10쌍이 표집되었으며, 각 집단 내에서 남녀 쌍은 같은 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표집된 아동의 年齡別·性別·親舊關係 類型別 분포는 <표 1>과 같다.

< 표 1 > 대상 아동의 年齡別·性別·親舊關係 類型別 分布

친구관계 유형 연령(평균연령)	여		남		합 계
	상 호 적 친 구 관 계	일 방 적 친 구 관 계	상 호 적 친 구 관 계	일 방 적 친 구 관 계	
8 세 (8.0세)	10	10	10	10	40
11 세 (11.2세)	10	10	10	10	40
합 계	20	20	20	20	80

본 연구에 참여할 상호적 친구와 일방적 친구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연령별로 200명씩 총 400명의 아동들에게 그들의 친구관계를 묻는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친한 친구로서 서로를 상호적으로 지명했을 경우 상호적인 친구관계로, 그리고 상호적으로 지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방적 친구관계로 선정하였다.

2. 研究道具

본 연구에서는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

을 측정하기 위하여, Ladd와 Emerson(1984)이 사용했던 도구를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2cm × 10.2cm 크기로 된 70장의 그림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그림항목들은 물체(objects)와 막대 인물(stick figures)로 묘사되었다. 70장의 그림항목들은 개인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7가지 범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다.

3. 研究節次

1) 豫備調査

본 연구에서 豫備調査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실시되었다. 먼저 제 1차 豫備調査는 Ladd와 Emerson(198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절하게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本調査에 들어가기 전에 한 아동에게 소요되는 시간 및 아동이 지시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 2차 豫備調査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국민학교 2학년 아동에게는 개별 면접을, 그리고 5학년 아동에게는 70장의 그림항목들을 축소시켜 만든 검사지를 사용하여 10명씩 집단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개별 면접의 경우 한 아동당 25~30분 정도였으며, 아동들은 연구자의 지시내용을 잘 이해하였다.

2) 本調査

本調査는 조사대상 국민학교의 과학실에서 방과후 실시되었다. 2학년 아동들은 그림항목을 사용하여 개별 면접하였으며, 5학년 아동들은 검사지를 사용하여 10명씩 집단으로 조사하였다.

(1) 개별 면접

본 연구의 대상인 2학년 아동들은 자기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면접(Knowledge-About-Self or KAS interview)과 친구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면접(Knowledge-About-Friend or KAF interview)에 참여했다. 똑같은 그림항목이 각 면접에 제시되었지만, 개인적·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7범주의 그림항목을 제시하는 순서는 아동마다, 그리고 면접마다 무선적이었다. 모든 아동들은 먼저 KAS

면접을 받았으며, 5일 후 KAF 면접을 받았다.

KAS 면접에서 연구자는 대상아동과 책상을 놓고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무작위적으로 그림항목을 한 세트씩 아동에게 제시했다. 그런 후 10장의 그림항목 모두를 하나씩 설명한 다음, 아동들로 하여금 자기와 관련된 그림항목을 하나씩 5장 선택하게 하여 그것들을 부근에 있는 상자에 넣도록 하였다. 5일 후 KAF 면접이 실시되었으며, KAF 면접의 절차는 KAS 면접에서 기술한 절차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단, KAS 면접에서는 자기와 관련된 그림항목을 선택하게 했지만, KAF 면접에서는 자기 친구와 관련된 그림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집단 면접

본 연구의 대상인 5학년 아동들도 2학년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KAS 면접과 KAF 면접에 참여하였다. 단, 개별 면접과는 달리 집단 면접에서 연구자는 각 범주별로 그림항목을 하나씩 설명한 후, 아동들로 하여금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 또는 친구와 관련된 그림항목을 5가지씩 선택하게 하여 검사지의 ()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4. 資料分析

1) 채점방법

언어진 자료는 두 종류의 공유지식점수로 채점되었다. 그 중 하나는 自己準據 共有知識을 측정하는 것(SRSK measure)으로, 친구관계를 이루는 두 아동이 자기와 관련된 특성으로 똑같은 항목을 선택하고, 또한 친구와 관련된 특성으로 그 항목을 상호적으로 선택한 경우의 빈도를 합하여 自己準據 共有知識點數로 삼았다. 다른 하나는 他人準據 共有知識을 측정하

는 것(ORSK measure)으로, 각 아동이 KAS 면접에서 고르지 않은 항목을 선택하여 친구를 묘사하고, 동시에 그 친구가 자기와 관련된 특성으로 그 항목을 상호적으로 선택한 경우의 빈도를 합하여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로 삼았다.

두 종류의 공유지식점수는 각 범주별로 따로 산출한 후 7점수를 합쳐 총점을 냈다. 각 범주에 따른 공유지식 측정에 있어 점수범위는 0점에서 5점이며, 대상아동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 점수범위는 0점~35점으로, 높은 점수는 더 많은 공유지식을 의미한다.

2) 통계적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

이 年齡·性·親舊關係 類型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IV. 研究結果

본 연구에서는 年齡·性·親舊關係 類型이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年齡·性·親舊關係 類型에 따른 공유지식점수의 기술통계치와 변량분석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2-1, 2-2> <표 3-1, 3-2>와 같다.

< 표 2-1 > 年齡·性·親舊關係 類型에 따른 自己準據 共有知識(SRSK) 點數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성 친구관계 유형 통계치	여		남		합 계
		상 호 적 친 구 관 계	일 방 적 친 구 관 계	상 호 적 친 구 관 계	일 방 적 친 구 관 계	
8세 (국 2)	N	10	10	10	10	40
	M	9.20	9.40	10.80	8.40	9.45
	SD	2.15	2.17	3.29	2.55	2.63
11세 (국 5)	N	10	10	10	10	40
	M	12.80	8.60	12.80	10.00	11.05
	SD	2.35	1.07	2.94	2.11	2.82
전 체	N	20	20	20	20	80
	M	11.00	9.00	11.80	9.20	10.25
	SD	2.87	1.72	3.21	2.42	2.83

〈 표 2-2 〉 年齡·性·親舊關係 類型에 따른 他人準據 共有知識(ORSK) 點數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성 친구관계 유형 통계치	여		남		전 체
		상 호 적 친 구 관 계	일 방 적 친 구 관 계	상 호 적 친 구 관 계	일 방 적 친 구 관 계	
8세 (국 2)	N	10	10	10	10	40
	M	7.20	5.90	5.60	5.50	6.05
	SD	1.93	2.08	1.51	2.12	1.97
11세 (국 5)	N	10	10	10	10	40
	M	6.70	9.50	6.10	7.00	7.33
	SD	1.64	2.07	1.79	1.89	2.21
전 체	N	20	20	20	20	80
	M	6.95	7.70	5.85	6.25	6.69
	SD	1.76	2.74	1.63	2.10	2.18

〈 표 3-1 〉 年齡·性·親舊關係 類型에 따른 自己準據 共有知識點數의 변량분석표

Sources	SS	df	MS	F
연령	51.20	1	51.20	8.83**
성	5.00	1	5.00	0.86
친구관계 유형	105.80	1	105.80	18.24***
연령×성	0.80	1	0.80	0.14
연령×친구관계 유형	28.80	1	28.80	4.97*
성×친구관계 유형	1.80	1	1.80	0.31
연령×성×친구관계 유형	20.00	1	20.00	3.45
오차	417.60	72	5.80	
전 체	631.00	79		

*P < .05, **P < .01, ***P < .001

〈표 3-2〉 年齡·性·親舊關係 類型에 따른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의 변량분석표

Sources	SS	df	MS	F
연령	32.51	1	32.51	9.11**
성	32.51	1	32.51	9.11**
친구관계 유형	6.61	1	6.61	1.85
연령×성	1.51	1	1.51	0.42
연령×친구관계 유형	32.51	1	32.51	9.11**
성×친구관계 유형	0.61	1	0.61	0.17
연령×성×친구관계 유형	12.01	1	12.01	3.37
오차	256.90	72	3.57	
전 체	375.19	79		

**P < .01

1. 假說 1 의 검증결과

〈표 3-1, 3-2〉에 의해, 연령에 따라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증가할 것이라는 假說 1 은 긍정되었다.

〈표 3-1〉에서 볼 때, 自己準據 共有知識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_{1,72} = 8.83, P < .01$), 〈표 3-2〉에서 他人準據 共有知識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72} = 9.11, P < .01$). 즉, 두 집단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11세 아동이 8세 아동보다 친구에 대한 自己準據 共有知識과 他人準據 共有知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표 2-1, 2-2 참조).

2. 假說 2 의 검증결과

〈표 3-1, 3-2〉에 의해,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을 것이라는 假說 2 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표 3-1〉

에서 보면, 친구에 대한 아동의 自己準據 共有知識에서 性の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F_{1,72} = 0.86, P > .05$), 〈표 3-2〉에서 他人準據 共有知識은 性に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1,72} = 9.11, P < .01$). 즉, 두 집단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에 대한 他人準據 共有知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표 2-2 참조).

3. 假說 3 의 검증결과

〈표 3-1, 3-2〉에 의해,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상호적 친구관계가 일방적 친구관계보다 높을 것이라는 假說 3 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표 3-2〉에서 보면, 아동의 他人準據 共有知識에서 친구관계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F_{1,72} = 1.85, P > .05$), 〈표 3-1〉에서 自己準據 共有知識은 친구관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F_{1,72} = 18.24, P < .001$). 즉, 두 집단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상호적 친구관계가 일방적 친구관계보다 친구에 대한 자기準據 共有知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표 2-1 참조).

4. 假說 4 의 검증결과

〈표 3-1, 3-2〉에 의해,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연령과 친구관계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 4 는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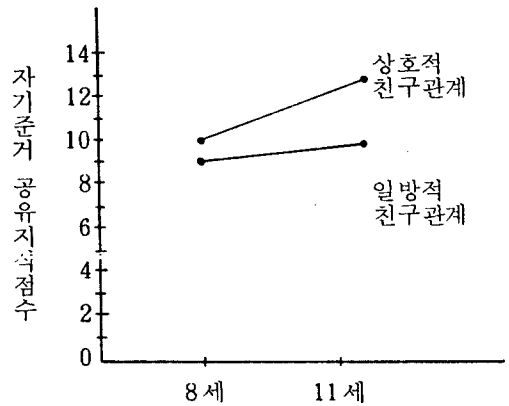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準據 共有知識은 연령과 친구관계 유형과의 상호작용효과가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8세에 있어서 각 친구관계 유형의 자기準據 共有知識點數는 상호적 친구관계에서 10.00 그리고 일방적 친구관계에서 8.90 으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단순주효과 분석에 의하면 상호적 친구관계와 일방적 친구관계의 자기準據 共有知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_{1,39} = 1.78$). 반면 11세에 있어서는 상호적 친구관계의 자기準據 共有知識點數가 일방적 친구관계의 자기準據 共有知識點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_{1,39} = 24.84,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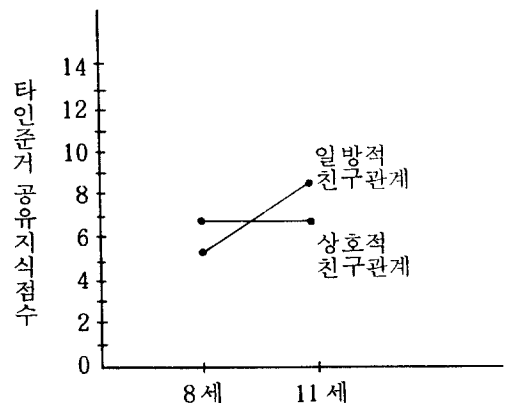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他人準據 共有知識은 연령과 친구관계 유형과의 상호작용효과가 $\alpha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8세에 있어서 각 친구관계 유형의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는 상호적 친구관계에서 6.40 그리고 일방

적 친구관계에서 5.70 으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단순주효과 분석에 의하면 상호적 친구관계와 일방적 친구관계의 他人準據 共有知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_{1,39} = 1.27$). 반면 11세에 있어서는 일방적 친구관계의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가 상호적 친구관계의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_{1,39} = 8.31, P < .01$).



〈그림 1〉 年齡과 親舊關係 類型에 따른 자기準據 共有知識點數



〈그림 2〉 年齡과 親舊關係 類型에 따른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

V. 論議 및 結論

1. 論議

본 연구에서는 年齡·性·親舊關係 類型이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령에 따라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증가할 것이라는 假說1은 긍정되었다. 즉, 친구에 대한 아동의 自己準據 共有知識과 他人準據 共有知識은 11세 아동이 8세 아동보다 높았다. 이로써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간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관한 공유지식이 친구관계에 있어 상호적 매력의 기초가 된다는 Selman (1980, 198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고 보고한 Sharabany, Geshoni와 Hofman (1981) 그리고 Ladd와 Emerson (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선호나 성격 특성과 같은 친밀한 정보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유의한 나이변화를 보고했던 Diaz와 Berndt (198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을 것이라는 假說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즉, 친구에 대한 아동의 自己準據 共有知識에 있어서 性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他人準據 共有知識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 이는 남아도 친구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여아만큼 알고 있지만, 친구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는 남아가 여아만큼 알지 못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욱 집중적이며 독점적·배타적인 2인 관계의 경향을 보인다는 Eder와 Hallinan (1978) 및 Rubin (1982)의 견해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는 Douvan과 Adelson (1966), Maccoby와 Jacklin (197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상호적 친구관계가 일방적 친구관계보다 높을 것이라는 假說3 또한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즉, 친구에 대한 아동의 他人準據 共有知識에 있어서 친구관계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自己準據 共有知識은 상호적 친구관계가 일방적 친구관계보다 높았다. 이는 상호적인 친구들이 일방적인 친구들보다 더 많은 共有知識을 가진다고 보고한 Ladd와 Emerson (198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연령과 친구관계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假說4는 확인되었다. 즉, 연령에 관계없이 상호적 친구관계의 自己準據 共有知識點數가 일방적 친구관계의 自己準據 共有知識點數보다 우세하지만, 8세에 있어서는 상호적 친구관계와 일방적 친구관계간에 自己準據 共有知識點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11세에 있어서는 상호적 친구관계와 일방적 친구관계간에 自己準據 共有知識點數의 차이가 유의했다. 또한 8세에 있어서는 상호적 친구관계의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가 일방적 친구관계의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보다 높지만, 11세에 있어서는 일방적 친구관계의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가 상호적 친구관계의 他人準據 共有知識點數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상대방과의 유사성에 대해 더 많이 알며, 아동들은 여러 특성에

있어 자신과 유사한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2. 結論

이상의 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둘째, 여아는 남아보다 친구에 대한 他人準據 共有知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自己準據 共有知識에 있어서는 여아와 남아간에 차이가 없었다.

셋째, 상호적 친구관계는 일방적 친구관계보다 自己準據 共有知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他人準據 共有知識에 있어서는 상호적 친구관계와 일방적 친구관계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친구에 대한 아동의 공유지식은 연령과 친구관계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연령과 친구관계 유형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自己準據 共有知識은 상호적 친구관계에서, 그리고 他人準據 共有知識은 일방적 친구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박희숙. (1985). 6-7세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 발달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주옥. (1985).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Berndt, T.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77-1460.

Bigelow, B.J. (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A cognitive-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48, 246-253.

Cozby, P.C. (1973). Self-disclosur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73-91.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Derlega, V.J. (1984). Self-disclosure and intimate relationship. In V.J. Derlega (Ed.),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s*, 1-9. Orlando: Academic Press.

Diaz, R.M., & Berndt, T.J. (1982). Children's knowledge of a best friend: Fact or 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87-794.

Duck, S., Miell, O.K., & Gaebler, H.C. (1980). Attraction and communication in children's interaction. In H.C. Foot, A.J. Chapman, & J.R. Smith (Ed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89-115. New York: Wiley.

Eder, D., & Hallinan, M.T. (1978).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friend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237-250.

Hartup, W.W. (1983). Peer relations. In P.H. Mussen (Series Ed.), and E.M. Hether-

- ington (Vol.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IV,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03-196. New York: Wiley.
- Ladd, G.W., & Emerson, E.S. (1984). Shared knowledge in children's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932-940.
- Newcomb, A.F., & Brady, J.E. (1982). Mutuality in boy's friendship relations. *Child Development*, 53, 392-395.
- Reisman, J.M., & Shorr, S.I. (1978). Friendship claims and expectations among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49, 913-916.
- Selman, R.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 Selman, R.L. (1981). The child as a friendship philosopher. In S.R. Asher & J.M. Gottman (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E. (1981). Girl friend, boy 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Worthy, M.A., Gary, L., & Kahn, G.M. (1969). Self-disclosure as an exchang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63-69.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